

Reporter's PICK

유비무환 수능을 부닥해!

어릴 적 운동회 때 100m 달리기 직전,
두근대는 마음으로 단단히 묶은 운동화 끈을
몇 번이고 고쳐 매던 기억이 있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요즘,
수험생은 '그날'을 위해 저마다의 '수능템'을
점점 중입니다.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게
도와줄 든든한 수능템을 소개합니다.

취재·사진 이도연 리포터 idy@naeil.com

Case 1

식곤증을 막아라! 오후를 부탁해~

6월 모평을 앞두고 딸아이가 수능용 도시락을 싸달
라고 하더군요. 두 팔 걷어붙이고 불고기에 달걀말이,
흰쌀밥까지 한가득 싸줬는데 3교시 영어 시간에 너
무 졸렸다는 '후기'를 전했습니다. 정신력이 해이한 거
아닌가 세모눈을 뜨려다가 찾아보니, 실제로 점심시간
직후인 영어 시간에 식곤증을 겪는 수험생이 상당하
다고 해요. 이후 몇 번 시험해 보니, 점심은 간단히 먹
고 오후 체력을 위해 평소 아이가 먹던 프로폴리스 캔
디나 효소, 피로회복제 등을 챙겨주는 게 시험 컨디션
유지에 좋더라고요. 단 실제 수
능 날에는 모든 수험생의 책
가방을 교실 앞으로 내놓기 때
문에 필통에 쏙~ 넣을 수 있는
작은 크기의 간식이 유용하다
는 점을 고려해야 해요.

_ 친절한 D



Case 2

시간이 한눈에 쏙! 수능 시계도 연습이 필요해

얼마 전 딸아이가 좋아할 만한 세련된 아날로그 손목시계를 사줬어요. 모의고사
때 사용해보곤, "시간이 한눈에 잘 안 들어온다"라더군요. 결국 오빠가 3년 전 수능
때 썼던 손목시계를 다시 꺼냈습니다. 써보니 착용감은 물론, 시험 시간 책상 위에
세워두고 보기 편했대요. 손목을 움직이지 않고 시선만 옮겨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느껴졌더라고요. 이때 기억해 둘 팁 하나! 과감하게 시곗줄을
잘라두면 좁은 책상 위에도 안정적으로 놓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리 충분히 사용해 보는 것이죠. 오래된 시계라면 건전지 확인은 필수이고요!

_ 친절한 D



Case 3

뚱뚱한 필통 대신 수능용 투명 필통

수능 날 낯선 환경에서도 당황하지 않으려면 평소 모의고사 때부터 수능용 필통에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평소 쓰던 필통은 색색의 펜과 메모지, 클립 등으로 이미 가득 차 있기 십상이죠. 얇은 PVC 재질의 투명 필통을 수능용으로 만들어 두면, 내용물이 훤히 보여 필요한 필기구를 바로 찾을 수 있고 크기가 작아 책상 위에서도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말랑말랑하고 가벼워 휴대하기도 편하고요. 투명 필통을 아이에게 건넸더니 처음에는 촌스럽다며 영 반응이 시큰둥했죠. 한데 막상 모의고사 때 써보더니 필요한 물건을 바로 찾을 수 있어 편리했다고 하더라고요.

_ 한입만 귀신 J



Case 5

불안은 내게 맡겨, 안정감을 주는 키템

수능 날 긴장을 푸는 방법도 아이마다 제각각이죠. 모의고사 때 보니 필통에 달아 둔 작은 인형 키템을 손으로 주물주물 만지며 긴장감을 덜기도 하더라고요. 익숙한 촉감 하나가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의외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소리가 나는 '키템 키템'은 수능 날만큼은 빼두는 게 좋아요. 조용한 시험장에서 주변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대신 네일클로버나 행운 부적처럼 좋은 의미가 담긴 키템이라면 '플라세보 효과'까지 기대해 볼 만하죠. 키템 하나로 마음까지 든든하게 챙겨 보세요. @

_ 이잠의 끝을 잡고 P

Case 4

수능 날, 머리카락도 방해 금지!

수능을 치른 학생의 후일담을 듣다 보면 의외의 복병이 있어요. 평소 공부할 때 가장 익숙하고 집중이 잘되던 머리 끈이나 헤드밴드를 집에 두고 가 시험장에서 집중을 못한 사례가 많더라고요. 여학생은 긴장한 나머지 평소 쓰던 머리 끈을 집에 두고 가서, 남학생은 남들의 시선을 받을까 헤어밴드를 챙기지 않아 낯선 시험장에서 하루 종일 불편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한껏 예민해지기 쉬운 날, 머리카락에 신경 쓰지 않도록 미리 챙기는 게 좋습니다. 사소해 보여도 시험 내내 집중력을 지켜주는 데 의외로 큰 도움이 됩니다.

_ 위즈덤 L

